

순백의 설원, 고요속으로 산책...“그 어떤 여행보다 멋진 경험”

키우리산악회와 떠난 겨울산행 지리산 바라봉



나인 키우리산악회 팀장

키우리 산행일인 지난 8일 이른 아침. 대문을 나서니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마음 한구석엔 망설임을 끄집어 내고 겨울산의 칼바람 추위가 갑자기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비도 오는데 가야하나?”

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인지 겨울날씨 치고는 포근했기에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나가 키우리회원들은 물론 새로 나온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134회 산행지인 지리산 바라봉으로 출발했다.

바라봉은 스님의 밭그릇인 바리때를 얹어 놓은 모양이라는 의미의 바리봉인데 음이 변해 바라봉으로 불린다고 한다. 정상에 서면 노고단, 반야봉, 쫄대봉, 천왕봉까지 조망 할 수가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로 원래는 숲이 울창했으나 1970년대 한국과 호주간의 면양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면양목장을 조성하면서, 면양이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기고 잡목과 풀을 모두 먹어버린 탓에 자연스럽게 철쭉 군락지(群落地)가 되었다고 한다.

일행을 태운 버스가 한참을 달려 운봉에 들어서니 비는 눈으로 바뀌었고 들녘과 야산에는 잔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운봉 허브밸리 주차장에 도착하니 지리산 바라봉 눈꽃축제가 한창 열려 우리 키우리 회원들도 눈꽃축제 막바지에 합류해 단체사진 인증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산행 준비를 마쳤다. 산행시작 30여분이 지나자 몸에 약간의 땀이 맺힐 때 썸 아이젠을 착용하고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다. ‘쁘드득’ 소리를 내는 눈을 밟으며 산을 오를 때 느끼는 기분은 겨울산에 오르는 사람만이 아는 감동일 것이다.

글로벌한 우리(키우리)산악회는 24살 미국 청년 데이비드와 우리말과 영어단어를 총 동원해 이야기하면서 산에 오르니 겨울바람이 삭풍이 아닌 훈훈한 봄바람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눈발은 계속 흠날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리 매섭지 않아 산행하기는 최적의 날씨였다. 키우리산악회원들 모두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기에 날씨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았나 싶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 잠시 망설였던 마음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산을 오를수록 메마른 겨울 나무에 하얀 눈꽃이 소복하게 피기 시작하



무아의 경지 산행삼매의 즐거움 삶의 활력으로 대자연의 가슴벅찬 감동...그 길에 추억을 묻다

더니, 상고대가 향량한 겨울나무의 애처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눈옷을 입혀 따스함을 주고 있는 듯 했다. 바라봉 삼거리에 오르니 상고대가 수놓은 천상의 세계로 우린 들어가고 있었고 설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색들이 흩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머릿속을 스친다.

하늘이 열어준 세상이기에 오르는 내내 흐렸던 하늘도 잠시 열리어 햇살을 비추어주고 그 빛으로 인해 순백의 상고대는 하얀 속살을 더 내보이며 서로 반짝거리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 수만금을 준들 내 발로 걸어서 힘든 산행을 하지 않으면 차마 볼수 없는 세상이기에 감동은 더욱 컸다.

힘들게 산을 오른 키우리 회원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회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내가 본 세상에서 제일 으뜸의 아름다움이라 칭할 수 있는 천상의 화원 이었다.

한동안 꿈인 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설경에 빠져 있던 모두에게 바라봉 정상을 찍고 이미 내려온 산악대장께서 1천167m 바라봉 정상을 다녀 오라고 권했다.

설경에 취해 힘든 줄도 모르고 단숨에 정상에 오르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쌓여야 할 눈들은 바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산골짜기로 날려 내려가고 있었다. 내리는 눈발에 저 멀리 지리산 주능선을 조망할 수 없음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대신 설경에 눈이 호사를 대신했다.

바라봉 정상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내려 오려는데 아~ 이영길 회장을 정상에서 조우했다. 얼마만인지 “밴드에 A코스 타시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약속을 지키는 모습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의 원조인 구상나무 아래 하얀 설원에서의 점심식사는 꿀맛 그 자체이다.

정상주를 마시고 각자 싸은 맛있는 여러 종류의 차와 과일들로 후식까지 맛나게 먹는 모습 또한 한쪽의 동양화가 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수천 개의 크리스마스트리 가 켜진 듯한 구상나무 앞에서 사진으로 추억을



‘순백의 영혼’ 눈덮힌 상고대.

남기고 가슴 언저리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저장해 두고 하산을 하기 시작했다.

오를 때는 눈길에 정신없이 오르느라 몰랐던 길이 내려오면서 마음의 여유 때문일까 하산한다는 기쁨 때문일까 뒤돌아 보니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가 저 길을 언제 올랐나 회원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했다.

운봉 용산리 마을이 보이고 길에 눈이 없어지면서 아이젠을 벗으니 다시 한번 바라봉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몸의 가벼움이 날 또 기쁘게 한다. 갑오년 134회 키우리산악회 지리산 바라봉 산행은 결코 잊지 못한 순백의 산행이였다.

갑오년에는 청마처럼 모두 활기차고 건강하며 행복한 키우리가 되길 기원해 본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나인(키우리산악회 팀장)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바라봉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회원들.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보양식 약오리전골/꼬리탕(찜) 아귀찜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녹차 굴비정식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영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www.megabox.co.kr
▶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겨울왕국-3D(더빙)/겨울왕국(자막)	전체관람
2관	조선미녀삼총사	12세
3관	수상한 그녀	15세
4관	수상한 그녀	15세
5관	겨울왕국(더빙)/겨울왕국(자막)	전체관람
6관	수상한 그녀	15세
7관	피끓는 청춘	15세
8관	남자가 사랑할때	15세
9관	넋짓:망풍 도둑들(더빙)/변호인	전체관람 15세
10관	디노티사:공룡대탐험(더빙)/변호인/피끓는 청춘	전체관람 15세/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겨울왕국(더빙)/겨울왕국(자막)	전체관람
2관	수상한 그녀	15세
3관	피끓는 청춘	15세
4관	겨울왕국-3D(더빙)/피끓는 청춘	전체관람 15세
5관	수상한 그녀	15세
6관	조선미녀삼총사	12세
7관	넋짓:망풍 도둑들(더빙)/남자가 사랑할때	전체관람 15세
8관	변호인	15세
9관	겨울왕국(더빙)/겨울왕국(자막)/남자가 사랑할때	전체관람 15세
10관	수상한 그녀	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하남

*매일 심야상영합니다!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무료주차 3시간 북구보건소 건너편

1관	변호인/수상한 그녀/폴리스 스토리 2014	15세 15세 15세
2관	피끓는 청춘	15세
3관	남자가 사랑할때	15세
4관	겨울왕국/겨울왕국-3D(더빙)/조선미녀삼총사	전체관람 12세
5관	넋짓:망풍 도둑들(더빙)/조선미녀삼총사/변호인	전체관람 12세 15세
6관	겨울왕국/겨울왕국-3D(더빙)/남자가 사랑할때	전체관람 15세
7관	수상한 그녀	15세

메가박스전대